

회계원리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 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 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④ 경영진은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해답> 1. 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없다.

문 2.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말 자본총계는?

○ 상품	₩ 800,000	○ 미지급비용	₩ 100,000
○ 차입금	₩ 1,000,000	○ 미수금	₩ 200,000
○ 현금	₩ 700,000	○ 매출채권	₩ 400,000
○ 미지급금	₩ 500,000	○ 선급금	₩ 600,000

- ① ₩ 700,000
- ② ₩ 900,000
- ③ ₩ 1,000,000
- ④ ₩ 1,100,000

<해답> 2. ④

1) 자산총액 = 상품(₩800,000) + 미수금(₩200,000) + 현금(₩700,000) + 매출채권(₩400,000) + 선급금(₩600,000) = ₩2,700,000

2) 부채총액 = 미지급비용(₩100,000) + 차입금(₩1,000,000) + 미지급금(₩500,000) = ₩1,600,000

3) 자본총계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2,700,000 - ₩1,600,000 = ₩1,100,000

문 3. 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

회계처리

- ① 외상용역대금 ₩200,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 ② 주당 액면 ₩1,000인 보통주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 ₩100,000을 받았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 ③ 관리용역 업체로부터 12월 관리비 발 생분 ₩50,000을 청구받았으나 내년 에 지급할 계획이다. 차변) 자본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 ④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000을 차 입하였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부채의 증가

<해답> 3. ①

외상용역대금의 현금회수분개는

(차) 현금(자산의 증가) ₩200,000 (대) 매출채권(자산의 감소) ₩200,000

문 4. (주)한국의 2017년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T계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기초재고	₩ 600,000	매출원가	₩ 5,150,000
X	?	기말재고	400,000
	₩ 5,550,000		₩ 5,550,000

매입채무

현금	₩ 5,030,000	기초매입채무	₩ 700,000
기말매입채무	620,000	Y	?
	₩ 5,650,000		₩ 5,650,000

- 재고자산 매입거래는 모두 외상거래이다.
-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의 분모 계산 시 기초와 기 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① 매입채무회전율은 7.5이다.
- ② 재고자산회전율은 10.3이다.
- ③ 당기 재고자산 매입금액은 ₩ 5,080,000이다.
- ④ 당기 매입채무 결제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 5,030,000이다.

<해답> 4. ③

X와 Y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외상매입액이다.

1) 외상매입액 = ₩5,550,000 - ₩600,000 = ₩4,950,000

2) 매입채무회전율 = ₩4,950,000 / [(₩700,000 + ₩620,000) / 2] = 7.5

3) 재고자산회전율 = ₩5,150,000(매출원가) / [(₩600,000 + ₩400,000)/2] = 10.3

문 5. (주)한국은 당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과 미지급비용을 차기에 모두 회수하거나 지급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7년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당기순손익은?

	2016년도	2017년도
현금매출	₩ 320,000	₩ 450,000
외상매출	₩ 740,000	₩ 910,000
비용지출*	₩ 480,000	₩ 450,000
기말 미지급비용	₩ 210,000	₩ 370,000
※ '비용지출'은 당기 발생한 비용의 현금지출이며, 전기 미지급비용의 당기 현금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현금기준

발생기준

- | | |
|-------------------|-----------------|
| ① 당기순손익 ₩ 0 | 당기순이익 ₩ 540,000 |
| ② 당기순이익 ₩ 530,000 | 당기순이익 ₩ 540,000 |
| ③ 당기순이익 ₩ 540,000 | 당기순이익 ₩ 530,000 |
| ④ 당기순손실 ₩ 160,000 | 당기순이익 ₩ 370,000 |

<해답> 5. ②

- 1) 발생주의 매출액 = 현금매출 + 외상매출 = ₩450,000 + ₩910,000 = ₩1,360,000
- 2) 발생주의 비용 = 현금비용 + 미지급비용 = ₩450,000 + ₩370,000 = ₩820,000
- 3) 발생주의 순이익 = ₩1,360,000 - ₩820,000 = ₩540,000
- 4) 발생주의 순이익 ₩540,000
- 외상매출(매출채권 증가) (₩170,000)
- 미지급비용 증가 ₩160,000
- 현금주의 순이익 ₩530,000

문 6. (주)한국은 2017년 결산완료 직전 재고자산 실사로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 외부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품 ₩16,000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켰다.
- F.O.B. 도착지기준으로 12월 27일에 ₩25,000의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상품이 기말까지 도착하지 않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 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주)한국의 상품 ₩22,000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 기말재고자산의 매입운임 ₩10,000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중복 실사로 인해 상품 ₩8,000이 기말재고자산에 두 번 포함되었다.

위의 사항이 (주)한국의 2017년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 ① 매출총이익 ₩8,000 증가
- ② 매출총이익 ₩33,000 증가
- ③ 매출총이익 ₩18,000 감소
- ④ 매출총이익 ₩24,000 감소

<해답> 6. ①

- 1) 정확한 기말재고 = 실사재고 - 타사재고 (₩16,000) + 외부 창고 보관분 (₩22,000) + 매입운임(₩10,000) - 중복재고(₩8,000)
- > 실사재고 대비 ₩8,000증가
- 2) 기말재고 증가 -> 매출원가 감소 -> 매출총이익 ₩8,000 증가

문 7. 결산수정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모품 취득 시 자산으로 기록하였다면 결산기말까지 사용한 부분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 ② 당기에 속하는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변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 ③ 유형자산 감가상각 시 차변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대변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한다.
- ④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결산기 말까지 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미제공한 부분은 부채로 계상한다.

<해답> 7. ④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당기의 수익으로, 용역을 미제공한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부채로 계상한다.

문 8. (주)한국의 다음 2017년 수정전시산표상 계정잔액과 결산수정사항을 이용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은? (단, 매출채권의 기초 대손충당금은 없으며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수정전시산표상 계정잔액>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	매출	₩ 12,000
기초상품	₩ 2,000	매입	₩ 5,000
선급임차료	₩ 4,000	매입채무	₩ 5,000
매출채권	₩ 10,000	선수금	₩ 5,000
비품	₩ 8,000	급여	₩ 5,000
단기차입금	₩ 7,000	자본금	₩ 15,000

<결산수정사항>

- 선급임차료의 기간 경과분은 ₩2,000이다.
-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1,500이다.
-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 발생액은 ₩500이다.
- 매출채권의 대손추정액은 ₩500이다.
- 기말상품 재고액은 ₩2,000이다.

- 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00
- ② 법인세차감전순손실 ₩2,500
- ③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500
- ④ 법인세차감전순손실 ₩3,500

<해답> 8. ②

- 1) 선급임차료 기간경과분 (차) 임차료 2,000 (대) 선급임차료 2,000
- 2) 감가상각비 계상 (차) 감가상각비 1,5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 3) 이자비용 계상 (차) 이자비용 500 (대) 미지급비용 500
- 4) 대손추정액 (차) 대손상각비 500 (대) 대손충당금 500
- 5) 매출원가 계상 (차) 기말상품 2,000 (대) 기초상품 2,000
- 매출원가 5,000 매입 5,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2,000(매출) - ₩5,000(매출원가) - ₩5,000(급여) - ₩2,000(임차료) - ₩1,500(감가상각비) - ₩500(이자비용) - ₩500(대손상각비) = (₩2,500)

문 9. 회계변경 또는 회계선택 결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단, 회계변경은 모두 정당한 변경으로 간주한다)

① 매입한 재고자산의 단가가 계속 상승할 때, 재고자산 단위원가결정 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②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비품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였다.

③ 신규취득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을 선택하였다.

④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기계장치에 대해 수선비가 발생하여 이를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해답> 9. ③

정률법은 초기 감가상각비 계상이 많은 가속상각법으로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① 재고자산 단가가 상승하면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기말재고금액이 커 매출 원가는 가장 작고, 당기순이익은 가장 크게 계산된다.

② 정액법의 경우 내용연수동안 비용을 균분하므로 내용연수가 증가하면 감가상각비가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④ 수선비는 당기 비용으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문 10. (주)한국은 2017년에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변경한 결과 2017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 50,000과 ₩ 30,000 증가하였다. 이러한 회계변경의 효과로 인한 2017년 기초이익잉여금의 변동액은? (단, 회계변경은 모두 정당한 변경으로 간주하며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 30,000 증가

② ₩ 50,000 증가

③ ₩ 80,000 증가

④ ₩ 20,000 감소

<해답> 10. ②

2017년 기초이익잉여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2017년도 기초재고자산이다.

(차) 기초재고자산 ₩50,000 (대) 이익잉여금 ₩50,000

문 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2017년 말 회계자료이다. 2017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영업이익은?

○ 매출액	₩ 300,000
○ 매출원가	₩ 128,000
○ 대손상각비(매출채권)	₩ 4,000
○ 급여(판매사원)	₩ 30,000
○ 사채이자비용	₩ 2,000
○ 감가상각비(본사건물)	₩ 3,000
○ 임차료(영업점)	₩ 20,000
○ 임대료	₩ 15,000
○ 법인세비용	₩ 50,000

- ① ₩ 130,000
- ② ₩ 115,000

- ③ ₩ 106,000
- ④ ₩ 83,000

<해답> 11. ②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300,000(매출액) - ₩128,000(매출원가) - ₩4,000(대손상각비) - ₩30,000(급여) - ₩3,000(감가상각비) - ₩20,000(임차료) = ₩115,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5,000 - ₩2,000(사채이자비용) + ₩15,000(영업외이익) = ₩128,000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78,000

문 12. 다음 자료의 토지 취득원가는?

- 토지구입비 ₩ 500,000, 취득세 ₩ 20,000을 지급하였다.
○ 토지구입을 위한 조사비용 ₩ 15,000, 감정평가 비용 ₩ 20,000을 지급하였다.
○ 토지 정지작업 중에 발견된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여 범칙금 ₩ 5,000을 지급하였다.

- ① ₩ 500,000
- ② ₩ 530,000
- ③ ₩ 555,000
- ④ ₩ 560,000

<해답> 12. ③

토지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비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토지 취득원가 = ₩500,000 + ₩20,000(취득세) + ₩15,000(조사비용) + ₩20,000(감정평가비용) = ₩555,000

● 범칙금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문 13.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자본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 ①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 ② 유상증자를 하여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았다.
- ③ 주주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하였다.
- ④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교부하였다.

<해답> 13. ①

① (차) 미수금(자산의 증가) XXX (대) 건물 (자산의 감소) XXX
->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액이므로 자산, 부채, 자본 불변

② 유상증자를 하면 현금납입만큼 자산증가, 자본증가이다.

③ 현금배당은 배당지급액만큼 자산감소, 자본감소이다.

④ (차) 토지(자산의 증가) XXX (대) 지급어음(부채의 증가) XXX
자산, 부채총액은 증가하고, 자본총액은 불변이다.

문 14. 사채 이자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자율은 0보다 크다)

- ① 사채가 액면발행된다면 매년 사채의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와 같지 않다.
- ② 사채가 할증발행된다면 매년 사채의 유효이자는 액면이자보다 적다.
- ③ 사채가 할인발행된다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매년 사채의 유효이자는 감소한다.
- ④ 사채가 할증발행된다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매년 사채의 유효

이자도 증가한다.

<해답> 14. ②

사채가 할증발행되면 유효이자 < 표시이자의 관계이므로 유효이자는 액면이자보다 적다.

문 15. (주)한국은 20×1년 초 (주)민국의 주식을 ₩100,000에 취득하였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과 20×2년 해당 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평가액은 각각 ₩130,000과 ₩110,000이다. 20×3년 3월말에 매도가능금융자산 전부를 공정가치 ₩120,000에 처분하였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① 현금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20,000
② 현금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③ 현금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현금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20,000

<해답> 15.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시 공정가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처분이익으로 대체한다.

처분시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차) 현금 12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평가이익 20,000 매도가능처분이익 20,000

매도가능평가이익은 20x2년에 ₩10,000의 잔액에 ₩10,000을 증가시켰으므로 ₩20,000을 처분이익으로 대체한다.

문 16. 2017년 1월 1일에 (주)한국의 보통주 1,000주(주당액면가 ₩5,000)가 유통되고 있었으며, 10월 1일에 보통주 800주가 추가로 발행되었다. 다음 자료에 따른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유통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은 월수로 계산하며, 다른 자본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우선주(주당액면가 ₩5,000) 유통주식 수: 100주
- 우선주배당률: 연 10 %
- 2017년 당기순이익: ₩650,000

- ① ₩500
- ② ₩550
- ③ ₩600
- ④ ₩650

<해답> 16. ①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00주 x 12/12 + 800주 x 3/12 = 1,200주

2) 기본주당순이익 = ₩650,000 - (100주 x ₩5,000 x 10%) / 1,200주 = ₩500

문 17. (주)한국은 원가모형을 적용해오던 건물에 대해 2017년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 시 건물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낮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재무제표항목의 변동과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2017년 말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 ÷ 기말자본)은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상승한다.
- ② 2017년 재평가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원가모형 적용 시의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 ③ 2017년 말 부채비율(기말부채 ÷ 기말자본)이 원가모형 적용에 비해 하락한다.
- ④ 기타포괄이익이 2017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해답> 17. ①

재평가모형의 경우 공정가치 > 장부가액이면 차액만큼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한다.

(차) 건물 XXX (대) 재평가잉여금(자본항목) XXX

①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불변 / 기말자본증가 -> 감소

② 2017년 재평가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하므로 감가상각비가 원가모형보다 크다.

③ 부채비율 = 기말부채 불변 / 기말자본 증가 -> 감소

④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만큼 기타포괄이익이 보고된다.

문 18. (주)한국의 2017년 말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 2016년 말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계상해야 할 확정급여채무는 ₩300,000, 사외적립자산에 출연된 금액은 ₩290,000이다.
- 2017년 중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0,000이다.
- 2017년에 추가로 인식해야 할 확정급여채무는 ₩20,000, 사외적립자산 추가 적립액은 ₩19,000이다.
- 이자수익(비용)과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000
- ② ₩10,000
- ③ ₩11,000
- ④ ₩21,000

<해답> 18. ③

1) 2017년 말 확정급여채무 = ₩300,000(기초잔액) - ₩10,000(퇴직금 지급액) + ₩20,000(추가인식액) = ₩310,000

2) 2017년 말 사외적립자산 = ₩290,000(기초잔액) - ₩10,000(퇴직금 지급액) + ₩19,000(추가 적립액) = ₩299,000

3)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310,000 - ₩299,000 = ₩11,000

문 19.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설치 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 ②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수취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③ 인도결제판매는 현금의 수취가 없더라도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즉

시 수익을 인식한다.

④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 <해답> 19. ①
- 설치과정이 단순한 경우,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②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결의일)에 인식한다.
- ③ 인도결제판매는 인도 후 결제가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 ④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문 20. (주)한국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20×1년 1월 1일에 매각하고 처분대금은 2년 후 일시불로 ₩100,000을 받기로 하였다. 매각 당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대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본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6 %이다. 본 거래가 20×1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2기간 6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계수는 0.89이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5,660 증가

② ₩69,000 증가

③ ₩74,340 증가

④ ₩80,000 증가

- <해답> 20. ③
- 1) 기계장치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 ₩89,000 - ₩20,000 = ₩69,000
- * 처분금액 = ₩100,000 x 0.89 = ₩89,000
- 2) 20x1년 이자수익 = ₩89,000 x 6% = ₩5,340
- 3) 20x1년 당기순이익 영향 = ₩69,000 + ₩5,340 = ₩74,340 증가

◆ 2017년도 관세직 회계원리 총평
2017년 10월 21일에 치러진 관세직 회계원리는 기존의 단답식 계산문제 보다는 회계상 거래를 분개해보고, 이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해석하는 질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회계학을 단락식으로 끊어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다소 어렵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으나,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고, 전 범위를 편차 없이 고르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실제 해답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도 출제빈도가 낮았던 퇴직급여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현금흐름표도 생소한 양식으로 출제되어 점수의 편차를 유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접근 방법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본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회계학도 이와 유사하게 단순 계산문제 보다는 회계상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계학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접 분개를 연습해 보고, 재무제표도 그려봄으로써 회계상 거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